

Q&A

Q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인데 왜 국민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나요?

A 국내 미세먼지는 기상요인과 국내배출, 국외유입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외 대책의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한·중 모두에게 절박한 사안으로 양국 정부는 '각자 또 함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국내 대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Q 코로나19로 미세먼지는 좋은 반면, 경제는 어려운데 꼭 계절관리제를 해야 하나요?

A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그간 정책의 누적효과와 함께 특히 기상요인(강수량 증가 등)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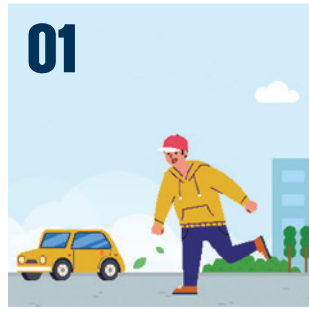
아울러 초미세먼지 노출은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도 초래하므로 코로나19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저감을 위해서도 강화된 계절관리제 시행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대응, 함께 해주실거죠?”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실천방법

미세먼지 줄이기! 함께 실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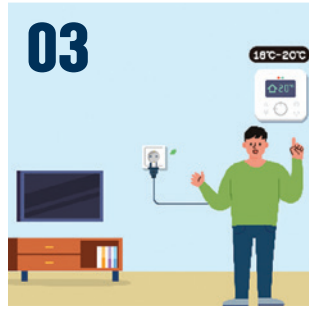
01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 줄이기!



02



03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불법소각,배출은
바로 신고하기!

환경오염 신고 | 128



04

우리 가족 건강! 이렇게 지켜요



05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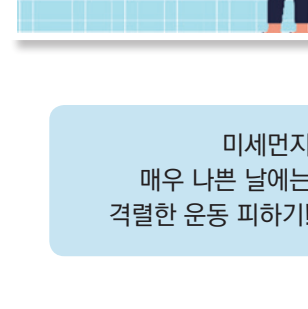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



07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08



06



우리 모두는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해결사!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

“계절관리제”

실천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란?

12~3월은 대기정체와 같은 불리한 기상여건이 지속되는 시기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머지 기간에 비해 약 45% 정도 높은 시기입니다.

이때 연간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와 나쁨 일수 또한 대부분 집중 발생하고 있어 "고농도 시기"라 칭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계절관리제의 기대효과는?

시행기간(12월~3월) 동안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 3~6일 감소, 평균농도 1.3~1.7 $\mu\text{g}/\text{m}^3$ 저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최근 3년간 12~3월의 평균 나쁨일수는 33일, 평균농도는 29 $\mu\text{g}/\text{m}^3$



계절관리 기간에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각 부문 별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합니다.

수송부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
* 저공해 미초차량 대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10만원/일)

구분	경기도·인천시	서울시
단속 예외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저공해조치 명령 (시·도지사 등)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0.12월) ※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21.3월까지 제외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21.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폐차 포함)시 환불 또는 취소

운행차량/민간검사소 집중점검

- 원격측정장비 등 활용해 배출가스 특별점검(12월, 3월)
- 부실검사 의심 검사소 집중단속(12월) 및 모니터링(1~3월)

선박 저속운항

- 부산항등 5개 항만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31 → 50%)

발전부문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 석탄발전 가동중지(9~16기) 및 상한 제약(최대 출력 80%)

전력수요 관리 강화

-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관리 점검 강화(실내온도 18℃ 이하 유지)
-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 비대면 캠페인 및 홍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갑니다

어린이, 노인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기관장 책임 하 전수 자체점검 (~11월)
- 관계기관의 동절기 안전점검과 연계한 단력적인 현장점검

지하철/철도/공항 역사 점검 및 저감조치 강화

- 실내공기질 점검 및 대합실, 공학터미널 등 습식청소 확대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

- 전국 30개소 집중관리구역 대상 측정(IoT 측정망), 정보 제공(미세먼지 신호등), 회피·저감 시설(스마트 에어샤워 등) 사업 지원

산업부문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 참여사업장 확대(160개 이상) 및 사업장간 교류·협력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 무인비행선, 드론 등 첨단감시 장비 확대운용(주요 산업 집중감시)
- 민간점검단(1,000명 이상) 활용 상시 감시 체계 운영

건설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 주거지 주변 공사장 중심, 비산먼지 저감 및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정보 공개 확대(대형건설사 자발적 협약 체결)

생활부문

영농 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 영농 폐기물(폐비닐, 폐농약 봉지 등) 집중 수거기간 운영('20.11~12월, '21.3~5월)
- 영농 잔재물(농작물 및 과수 등 부산물) 지자체 책임 수거·처리체계 제도화 및 불법소각 방지
-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및 영농장재물 일제 파쇄의 날 확대(88 → 200개 마을)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 전국 387개 도로 총 1,950km 대상 도로 청소 강화

한·중이 함께 협력해 갑니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협력 강화

- 한중 환경장관회의(11월)
- 양국 계절관리대책 공유 정례회의(2회)
- 국내 환경산업체의 중국진출 지원 확대
- 충남-장쑤성, 서울-베이징 등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한·중 관측·예보 협력 강화

- 대기질 공동관측지점(8개, 한중 각 4개) 집중분석
- 예보정보 및 기술교류회 개최 등

고농도 발생시 조치 사항

대응체계

- 고농도 발생시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위기관리 체계 가동
- 고농도 지속 또는 악화시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상향하고 기관별 상황실(본부) 설치·운영

저감조치

- 위기경보 단계별(1~4단계) 강화조치 시행

1단계 **관심**

사업장 의무 감축조치 시행,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시행, 도로 물청소 강화(2~3회 이상, 소방차 물분사 지원) 등

2단계 **주의**

관용·공용 차량운행 전면제한(긴급차량 등 제외), 전국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탄력근무 권고 등

3-4단계 **경계 심각**

관급공사장 전면 중단 및 민간공사 중단 권고, 민간 보유물자 동원(예: 살수차), 마스크 무상 배포 등